

漢字語의 한글表記와 類型에 關한 考察

—『洪吉童傳』(昭和9年.京城)을 中心으로—

漢字語의 한글表記와 類型에 關한 考察

—『洪吉童傳』(昭和9年.京城)을 中心으로—

高 明 均
Myunggyun Ko

本研究の目的は、『洪吉童傳』(昭和9年.京城)に現れた漢字語 526 個を抽出し、ハングル表記と類型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漢字語のハングル表記では、初聲・中聲・終聲の使い方を分析し、大部分は音読であるが一部は訓読表記の例もあった。一方、漢文(漢字語)を理解し、利便性を勘案した文法的な関係を示す格助詞と連体形語尾が追加的に挿入されるめずらしい形も現れた。

漢字語の類型の特徴を調べた結果、2 音節(全体の 47.5%)の漢字語の構造を見ると並列関係(同意〈対等〉、反意、疊語)などの多様な構造の漢字語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接頭・接尾漢字語を示した派生語が多数発見でき、さらに漢字語の意味場による類型別分類も可能になった。

キーワード

『洪吉童傳』、漢字語のハングル表記、漢字語の類型(音節・形態・意味)

1. 序

本研究は昭和9年(1934年)京城(서울)에서 發刊된『洪吉童傳』에 나타난 漢字語의 한글表記와 類型을 알아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朝鮮時代 中期에 許筠이 지었다는 最初の 한글 小説인『洪吉童傳』은 中國의『水滸傳』,『三國志演義』,『西遊記』의 影響을 받아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最近에 發見된 文獻에서, ‘許筠은 한글 小説과는 無關하다’라는 說¹⁾이 提起되어 學界에 關心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洪吉童傳』은 現代에 이르기까지 多様な 異本이 傳해져 오고 있으며 本 小説도 그중에 하나다.

이 作品은 盜賊을 主人公으로 한 英雄小説, 兩班家庭의 矛盾을 剔抉하고 庶孽差別의 不合

理에 抗拒한 社會小說, 理想鄉을 그리는 樂園思想의 小說, 遁甲法・縮地法・分身法・乘雲法을 담은 道術小說 等の 多様な 屬性을 지니고 있어서 韓國 小說史에서 特異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1991. 參照)

1934 年에 刊行된 本 小說은 上下編 總 36 쪽으로 規格은 가로 13.5 센티, 세로 20 센티, 表紙는 컬러로 되었다. 本文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活字體의 한글로 쓰여져 있으나 必要에 따라 한글과 漢字語가 併記되어 나타나 있다. 本 小說이 刊行된 時期는, 朝鮮總督府에 依해 이미 3 회에 걸친 「諺文綴字法」²⁾ 이 改正된 狀態이었고, 「한글맞춤법統一案」이 制定된 直後의 作品이라서 그 表記나 形態, 內容面에 더욱 興味를 갖게 된다. 本 小說의 一部를 紹介하면 例文 1) 과 같다.

- 1) ~ 조선국세종시절에한재상이잇스되성은흥이오명은되라대々명문거족 (代代名門巨族)으로소년등과 (少年登科) 하야벼살이리조판서에일매물망이조야 (朝野) 에웃듬이오충효겸비 (忠孝兼備) 하기로일흠이일국에진동하더라 ~ (上篇 1)
- ~ 홀연일진음풍 (一陣陰風) 이이러나며집은간대업고칭々한산중에풍경이거룩한지라특재대경하여길동의조화신기함을알고비수를감초와피코져하더니문득길이스쳐지고층암절벽 (層巖絶壁) 이가리윗스니진퇴유곡 (進退維谷) 이라 ~ (上篇 7)
- ~ 일위로옹 (一位老翁) 이청려장 (靑藜杖) 을집고속발관 (束髮冠) 을쓰고학창의를입고던상에오르며왈그대인간자미엇더하뇨 ~ (下篇 36)

先行研究로, 宋敏 (2011a) 은 朝鮮의 漢字語는 中國語처럼 單純語와 合成語式으로 分類하는 어려운 만큼 形態의 基準과 文法的 基準을 適切히 調和시켜 分類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특히, 朝鮮語의 2 音節 漢字語의 並列構造에 對하여 仔細히 說明하고 있다. 한편, 開化期의 外來語 起源의 日本語 借用 (가방←鞆 [kaban] <中國語 夾板 [ka-pan] : 江戸時代, 俱樂部←俱樂部 [kurabu] <英語 club : 明治時代, 램푸←洋燈 [rampu] <和蘭語 lamp : 江戸時代, 쫓기←チョッキ [tyoqki] <和蘭語 jak : 明治時代 <英語 jacket : 明治時代に 再借用, 鐵筆←펜 [pen] <和蘭語/英語 pen : 明治時代, ...) 등에 對하여 具體的인 例를 提示하고 있다.

전정예 (2013) 는 現代 中國語의 基本語順에 對하여, ‘朝鮮語를 包含한 알타이 語族의 類型처럼 漸次 SVO 形態에서 SOV 形態로 變해 가고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 그 4 가지 理由로는 Li & Thompson (1974) 의 研究를 아래와 같이 再引用하면서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本 研究의 第 3 章 ‘漢字語의 類型’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 2) ㄱ. S (主語) + V (敍述語) + PP (副詞語) > S+PP+V
 ㄴ. ‘把’字文의 出現

- ㄷ. ‘被’로 構成되는 被動句의 出現
- ㄹ. 複合語, 後置詞, 動詞接尾辭의 出現

石塚(2019)는 朝鮮 近代小說의 文体는 漢文体, 國漢文体, 國文体로 變貌해 왔는데, 國文体 小說의 四割 以上이 補助的으로 漢字를 併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補助漢字를 使用하게 된 當時의 歴史的 背景에 대해서 ‘當時一般的であつた讀書習慣の形式は識字者が非識字者に向かつて書物を読み聞かせ説明する場が存在していたことから、もう一つは漢文に慣れ親しんだ多くの読者らにとっては補助漢字が受け入れられやすい表記形態であつたと考えられることである.’(當時 一般的이었던 讀書習慣의 形式은 識字자가 非識字자에게 書冊을 읽어 주고 説明하는 곳(境遇)이 存在했기 때문이다. 또한, 漢文에 親熟한 많은 讀者들에게는 補助漢字가 받아들이기 쉬운 表記形態였다고 생각되어진다. :筆者譯)라고 説明하고 있다. 또한, 補助漢字의 앞에 한글表記는 音讀 ‘정신덕련애(精神的戀愛)’뿐만 아니라, 訓讀 및 漢文調 語句 ‘암닭이 새벽에 울면(雌鷄有晨)’의 例를 提示하면서 補助漢字의 使用에 있어서 便宜性을 提供하고, 나아가 國文体 移行의 仲介役割을 擔當하였음을 推測해 볼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음 章에서는 既存의 研究를 土臺로 하여, 1934 年에 發刊된『洪吉童傳』에 나타난 漢字語 總 526 個(1 音節~14 音節)의 한글表記와 그 類型에 對하여 集中的으로 分析해 보고자 한다.

2. 漢字語의 한글表記

2.1 初・中・終聲의表記

漢字語의 한글表記를, 子音(初聲, 終聲) 및 母音(中聲)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漢字語의 한글表記가 아닌 本文의 한글表現에 있어서 初聲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ㄱ. ~문득 쑈지저~, ~모래를 가마니 입에 넛코 썩무니~
- ㄴ. ~만일 그 쑈를 위로하면~, ~입으로 소래만 지를 싸름이라~
- ㄷ. ~너^쑈 아니어던 엇지 편협한~, ~배 썩으기 살갓흔지라~
- ㄹ. ~길동이 쑈차 가고자, 눈섭을 썩기고~
- ㄻ. ~신이 죽기로^쑈 길동을 잡아~

(但, 便宜를 爲해 띄어쓰기를 함)

例文 3) 처럼 單子音을 包含하여 多樣的 復子音(밑줄친 部分)이 나타난다. 이처럼 本文

의 初聲은 單子音 14個 (ㄱ~ㅎ)와 復子音 5個 (ㄱ ㅅ ㅈ ㅊ ㅋ)³⁾로 各字竝書 1個, ‘ㅅ’ 系列의 合用竝書 4個로, 現代語의 된소리 表記 ‘ㄱ ㅌ ㅍ ㅍ’은 나타나지 않는 特徵을 보인다. 그러나 漢字語의 한글 表記에 있어서 初聲은, 위에서 言及한 單子音 14個와 復子音 1個 (ㅈ: ‘쌍루중횡雙淚縱橫’)만이 쓰이고 있다. 卽, 漢字語의 한글 表記에는 本文에서 使用된 復子音 4個 (ㄱ ㅅ ㅈ ㅊ)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15世紀 訓民正音 解例의 終聲解는 八終聲法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音節末 位置에 나타나는 子音의 中和現象은 8個로 充分함을 明示하였으나, 16世紀부터 17世紀에 이르는 近代時期에는 ‘ㄷ’과 ‘ㅅ’이 混用되어 나타나고, 18世紀에는 ‘ㄷ’이 漸次 없어지고 ‘ㅅ’으로 統一되는 傾向을 보인다. 卽, 七終聲法이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나 本小說에 使用된 漢字語의 한글 表記에는 ‘ㅅ’도 사라진 六終聲法 (ㄱ ㄴ ㄷ ㄹ ㅁ ㅇ)을 固守하고 있다. (但, 訓讀으로 읽은 ‘천리밖게〈千里外〉’의 1回만 登場함) 特히, 終聲의 ‘ㄷ’에 對하여『訓民正音解例本』에 依하면 ‘~終聲當用ㄷ而俗習讀爲ㄹ盖ㄷ變而爲輕也若用ㄹ爲輕之終~’(終聲 ㄷ이 變해서 가벼운 소리 ㄹ이 된다)의 說明이 있고, 또한『東國正韻』⁴⁾序文을 보면, ‘~語音(漢字音)則四聲甚明 四聲 則上去無別 質勿諸韻 宜以端母爲終聲 而俗用來母 其聲徐緩 不宜入聲 此四聲之變也 端之爲來 不唯終聲 如次第之第 牧丹之端之類 初聲之變者亦來~’(말소리에는 四聲이 分명한데, 上聲과 去聲의 區別이 없다. 質(질), 勿(물)과 같은 韻은 ㄷ 終聲을 써야 하는데, ㄹ 終聲을 使用하는 理由로 그 소리가 느리고 늘어져서 入聲이 되지 못하니 이것은 四聲의 變이라 하겠다. ㄷ이 ㄹ로 變한 것은 終聲뿐만 아니라 次第(차데)가 ‘차례’, 牧丹(목단)이 ‘모란’과 같이 初聲이 變한 것도 적지 않다.)처럼 終聲의 ‘ㄷ’도 漢字語의 한글 表記에서 사라진 것으로 思料된다.

上記의 內容을 要約하면, 漢字語의 한글 子音表記에서는〈表1〉처럼 初聲 15個, 終聲 7個만이 나타나고 있다.

〈表1. 『洪吉童傳』(昭和9年)의 漢字語 한글 子音表記〉

子音(初聲): 15	子音(終聲): 7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ㅇ

母音의 境遇 單母音과 二重母音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單母音은 現代語와 마찬가지로 8個가 쓰였으며, 前時代까지 널리 使用되었던 ‘·’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二重母音의 表記에 있어서는 半母音 /j/와 結合한 ‘ㅈ’와 半母音 /w/와 結合한 ‘ㄹ’以外的 11個의 二重母音이 漢字語 한글 表記에 使用되었다. 二重母音의 表記에 있어서 當時의 表記가 現代語와 다른 點을 살펴보면 例 4)와 같다.

- 4) ㄱ. 석사(昔事), 홍점(紅点), 종자수(십)인(從者數(十)人)

ㄴ. 군그 (軍器), 신그 (神奇), 년그칠순 (年既七旬)

ㄱ. 은 單母音 ‘ㅏ’ 로表記되어야 할 곳에 二重母音 ‘ㅑ’ 가 나타난 境遇이다. 이것은 「한글맞춤법統一案」 35 項⁵⁾ 을 따르지 않고表記한 例이다. ㄴ. 의 二重母音 ‘ㅑ’ 의表記도 1930 年「諺文綴字法」各設 3 項의 規定인 ‘純粹한 朝鮮語와 漢字音을 不問하고 ~ㅁ, ㅂ, ㅅ, ㅆ, ㅋ, ㅌ를 ㅁ, ㅂ, ㅅ, ㅆ, ㅋ, ㅌ로表音의表記法에從하여야한다’ 에 따른다면 ‘그>기’ (ㅏ>ㅣ) 로表記해야 맞는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따라 本小說에 使用된 漢字語 한글表記의 母音에 關하여 整理해 보면 아래의 〈表 2〉와 같다.

〈表 2. 『洪吉童傳』(昭和 9 年)의 漢字語 한글 母音表記〉

單母音 : 8	二重母音 : 1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ㅑ ㅓ ㅕ ㅗ ㅛ ㅜ

한편, 初聲의 齒莖音 /ㄷ/, /ㄸ/이 /ㅣ/, /ㅑ/母音과 結合한表記(非口蓋音化)方式이 두드러짐을 確認할 수 있다. 例를 들면 아래의 例 5)와 같다.

- 5) ㄱ. 디술 (地術), 사디 (四肢), 던하덕택 (殿下德澤), 옥야던답 (沃野田畝), 일동일덩 (一動一靜), 던상에일위군왕 (殿上一位君王),
 ㄴ. 턴살 (天殺), 턴명 (天命), 턴은 (天恩), 턴위진로 (天威震怒), 턴도ㅣ자연 (天道自然), 턴문디리 (天文地理)

위의 例는 1921 年의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의 7 項⁶⁾ 에 依據한表記로, 그 이후 制定된 「諺文綴字法」과 「한글맞춤법統一案」에서는 口蓋音化된表記로 나타낼 것을 規定하고 있으나 本小說은 따르지 않았다. 특히, ㄴ의 例에 나타난 것처럼 激音 ‘ㄸ’ 의 境遇, 漢字語 ‘턴 (天-)’에만 局限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音・訓讀表記

漢字語의 한글表記는 大部分 音讀이지만, 一部는 訓讀(音讀+音讀+訓讀/訓讀+音讀+訓讀/訓讀+訓讀/訓讀+音讀+音讀, ...)인 例가 있다.

- 6) ㄱ. 音讀: 친묘 (親墓), 망부산소 (亡父墓), 일야간 (一夜間), 사생존망 (死生存亡)
 ㄴ. 訓讀: 나귀 (驢)
 ㄷ. 音讀+音讀+訓讀: 평생힘 (平生力), 옥저소리 (玉笛聲)

- ㄹ. 訓讀 + 音讀 + 訓讀 : 돌문속 (石門裏)
- ㄱ. 訓讀 + 訓讀 : 가죽부대 (皮囊)
- ㅂ. 訓讀 + 音讀 + 音讀 : 붉은혈점 (血點)

(*. — 은 訓讀으로 읽은 漢字語)

위의 例에서 ㄱ. 은 音讀으로, ㄴ. ~ ㅂ. 은 音讀과 訓讀이 混在된 境遇이다. ㄱ. 에서 漢字語 ‘墓’ 는 ‘묘 / 산소 (山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묘 (되)’ 는 사람의 무덤 (문다 + -엄 <接尾語>) 을, ‘산소’ 는 묘 (되) 를 높여 이르는 말로서 ‘묘’ 와 ‘산소’ 는 同一 漢字語에 依한 同意語임을 알 수 있다. 特히, ㅂ. 은 音·讀을 다 밝힌 表記로, 이는 1 音節 漢字語 (血) 에 對하여 3 音節 (붉은혈) 한글 表記로 나타난 極히 드문 樣相이거나 誤記 일 可能性이 있다.

2.3 格助詞와 連体形 挿入에 依한 表記

漢文을 제대로 읽고 理解하기 爲해서는 朝鮮語 文章의 語順을 考慮한 翻譯이 반드시 必要한데, 그 過程에서 多樣한 吐가 나타나는 要因이 되었다. 卽, 漢文 (漢字語) 을 읽을 때 句節 끝에 붙는 文法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한글 表現으로, 格助詞와 連体形語尾가 이에 該當한다. 이러한 吐가 本 小說의 漢字語에서는 어떻게 活用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아래의 7) 과 같이 主格, 目的格, 屬格, 副詞格 助詞, 8) 과 같이 連体形語尾가 追加的으로 挿入되어 나타남을 確認할 수 있었다.

- 7) ㄱ. 主 格 : 대장부ㄹ (大丈夫), 백룡부부ㄹ (白龍夫婦), 민심이소동 (民心騷動), 언어ㄹ충직 (言語忠直), 음식이부족 (飲食不足), 인물이번승 (人物繁盛), 총명이과인 (聰明過人), 팔도ㄹ요란 (八道擾亂), 디방이수천리 (地方數千里), 심새자연산란 (心思自然散亂) 좌우포장은발군 (左右捕將發軍), 솔토지민이막비왕신 (率土之民莫非王臣)
- ㄴ. 目的格 : 대사를도모 (大事圖謀)
- ㄷ. 屬 格 : 부자의ㄹ충효 (父子忠孝)
- ㄹ. 副詞格 : 일시에ㄹ칭찬 (一時稱讚), 천리밖게 (千里外), 미간에ㄹ산천정기 (眉間山川精氣), 원앙에ㄹ자미 (鴛鴦滋味), 후원에ㄹ배회 (後園徘徊), 흉중에ㄹ조화무궁 (胸中造化無窮)
- 8) ㄱ. 완연한ㄹ재상가자제 (宛然宰相家子弟)
- ㄴ. 당々하온남자 (堂堂男子)

7) ㄱ. 에서 主格助詞는 ‘-이/ㅣ/은’ 만 나타나고, ‘-는/가’ 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는 先行音이 子音 (받침) 일 때이고, 母音으로 끝날 때는 ‘-ㅣ’ 가 오게 된다. ‘-은’ 은 ‘좌우포장은발군 (左右捕將發軍)’ 의 1 회만 나타난다. ‘심새자연산란 (心思自然散亂)’ 에서는 ‘사 (思) + ㅣ > 새’ 로 形態素 分析이 可能하다. ㄴ. 은 目的格 助詞 ‘-를’ 이 쓰인 例로 但只 한번 나오고 있다. ㄷ. 은 屬格助詞 ‘의’ 를 追加的으로 表記하였는데, ‘경국지색 (傾國之色)’, ‘불의지인 (不義之人)’, ‘부생모육지은 (父生母育之恩)’ 처럼 本來 漢字語에서는 ‘-지’ 로 나타났던 것들이라 思料된다. ㄹ. 은 副詞格 助詞 ‘-에’ 가 쓰인 것으로, ‘천리밖게 (千里外)’ 의 例는 ‘~밖에 (千里外) > ~밖게 (千里外)’ 로 連綴된 表記形態이다.

8) 은 連体形語尾를 漢字語와 漢字語 사이에 挿入함으로써 漢字語를 理解하고 解釋하려는 努力을 엿볼 수가 있다. 卽, ‘완연한재상가자제 (宛然宰相家子弟)’ 는 ‘완연-하 (動詞化素) + -ㄴ (連体形語尾)’, ‘당々하온남자 (堂堂男子)’ 에서는 ‘당々-하 (動詞化素) -오 (謙讓補助語幹) + -ㄴ (連体形語尾)’ 으로 分析이 可能하다.

2.4 重疊音 表記 및 誤記

本 小説에서는 漢字語의 한글表記뿐만 아니라 한글의 重疊音 表現은 中國語와 日本語의 影響을 받아서 ‘々’ 로 表記했는데, 이는 같은 漢字가 繼續해서 反復될 때 두 番째 漢字를 代身해서 使用하는 反復記號로 ‘重字, 疊字’ 라고도 한다. 例 9) 와 같은 境遇이다.

9) ㄱ. 漢字語 表記 : 대々명문거족 (代代名門巨族) 으로 소년등과 (少年登科)

당々하온 남자 (堂堂男子) 되엿사오니

망々대해 (茫茫大海) 에 순풍이 일러나매

산은 첩々하야 지향업시 향하니 (산은 疊疊하야~)

날이 점々 저문 후 잡지 못하고 도라 가니라 (날이 漸漸~)

정병 오천을 거나려 여차々々하라 하니 (~如此如此하라~)

ㄴ. 한글 表記 : 한 곳에 다々르니 경개절승 (景概絶勝) 한지라

남은 사람은 다 벼살을 도々고 최철로 순무안찰사 (巡撫按察使) 를 하야

칭々한 산중에 풍경이 거룩한지라

重疊音 表記 ‘々’ 는 漢字語의 한글表記 및 固有語 表記에도 쓰였으나 이러한 表記方式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漸次 사라지게 된다.

한편, ‘대질왕 (왈) (大叱曰), 간 (잔) 명 (殘命), 보턴지하막비왕토 (普天之上莫非王土) ...’ 등 確實한 誤記라고 判斷되는 表記도 間歇的으로 나타난다.

3. 漢字語의 類型

3.1 音節에 依한 漢字語

朝鮮語의 漢字語는 形態의으로 1 音節語~多音節語의 區別이 可能하지만 2 音節語가 그 主軸을 이룬다. 그 理由는 量的으로 2 音節語가 1 音節語보다 越等히 많고⁷⁾, 3 音節語 以上은 派生語와 合成語가 大部分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本 小說에 나타난 漢字語의 總數는 526 個이며 이것을 音節別로 살펴보면, 1, 2, 3, 4, 5, 6, 7, 8, 9, 13, 14 音節로 11 個의 類型이 나타난다. 音節別 個數 및 用例를 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表 3. 『洪吉童傳』(昭和 9 年 京城) 에 나타난 音節別 漢字語의 個數〉

音節	漢字語의 用例	個數	%
1	탕 (湯)	2	0.4
2	간장 (肝腸)	250	47.5
3	대장부 (大丈夫)	45	8.5
4	국태민안 (國泰民安)	177	33.6
5	우포장리흠 (右捕將李治)	32	6.1
6	부생모육지은 (父生母育之恩)	12	2.3
7	완연한재상가자제 (宛然宰相家子弟)	2	0.4
8	활빈당행수홍길동 (活貧黨行首洪吉童)	3	0.6
9	전임병조판서홍길동 (前任兵曹判書洪吉童)	1	0.2
13	전임병조판서률도왕신홍길동 (前任兵曹判書律島王臣洪吉童)	1	0.2
14	돈슈백배상언우조선성상탑하 (頓首百拜上言于朝鮮國聖上榻下)	1	0.2
計		526	

拙稿 (2011) 에서도, 『隣語大方』 (1882 年刊) 의 一部를 中心으로 韓日 兩國의 漢字 同意語 91 雙의 關係를 살펴 본 結果, 1 音節 漢字語 4.4%, 2 音節 漢字語 85.7%, 3 音節 漢字語 3.3%, 4 音節 漢字語 5.5%, 6 音節 漢字語 1.1%로 나타난 것처럼 2 音節語가 絶對多數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本 小說에 나타난 1 音節 漢字語는 ‘나귀 (驢), 탕 (湯)’ 2 個만 나타나는데, ‘나귀 (驢)’는 訓讀으로 읽은 特異한 形態이다.

2 音節 漢字語는 250 個 (47.5%) 로 壓倒的으로 나타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2 音節 漢字語의 構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0) ㄱ. 同意 (對等, 類似) 竝列語 : 하해 (河海), 등촉 (燈燭), 소멸 (消滅), 호위 (護衛), ...

ㄴ. 反意竝列語 : 적서 (嫡庶), 조야 (朝野), 산곡 (山谷), ...

ㄷ. 疊語並列語: 앙々 (怏怏), 야야ㅣ (爺爺), ...

11) ㄱ. 主述關係語: 천 (친) 국 (親鞠: 王이 罪人을 訊問함), ...

ㄴ. 修飾關係語: 동기 (同氣), 백용 (白龍), 턴은 (天恩), 온수 (溫水), ...

ㄷ. 述補關係語: 무한 (無限), ...

ㄹ. 述目關係語: 나수 (拿囚), 문안 (問安), 유언 (遺言), ...

위의 10) 처럼 並列關係의 漢字語와, 11) 처럼 主述, 修飾, 述補, 述目關係 等の 多樣한 構造의 漢字語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音節은 모두 45 個 (8.5%) 로, 固有名詞인 姓名 ‘김현충 (金賢忠)’, 地名 ‘월봉산 (月峰山)’, 官職名 ‘좌승상 (左丞相)’ 等이 주로 나타난다. 또한, 接頭漢子語 ‘대장부ㅣ (大丈夫)’ 및 接尾漢子語 ‘도부수 (刀斧手)’ 等이 登場하는데 仔細한 內容은 3.2에서 說明하고자 한다.

4 音節은 2 音節에 이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表現으로 177 個 (33.6%) 가 登場하고 있다. ‘남가일몽 (南柯一夢), 진퇴유곡 (進退維谷)’ 等처럼 四字成語와 그 以外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四字成語는 ‘어떤 事件의 緣故에 密接하게 聯關되어 生成되거나, 特定한 理由없이 옛날부터 이루어진 慣用的인 表現의 漢字成語’ 로 故事成語 (古事成語) 라고도 한다. 이러한 四字成語는 民衆들의 日常生活에서 만들어지는 俗談과도 깊은 關聯이 있다. 語彙나 文章으로 나타내는 慣用的인 表現에는 狹義의 慣用과, 廣義의 慣用的 둘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構成要素의 意味가 轉移되고 化石化되어 새로운 意味를 가지는 融合複合語의 形態로, 또는 句節形態를 取하기도 한다. 後者는, 大衆性과 通用性을 지니는 모든 表現으로, 融合複合語를 비롯하여 故事成語, 多義語, 隱語, 比喩語, 熟語, 俗談, 수수께끼 等を 包含시킬 수 있다. (拙稿 2003. 75-76 參照) 이러한 表現들은 一次的으로 比喩的 表現을, 副次的으로는 敎訓, 諷刺, 諧謔, 아이러니 等を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本 小說에 登場하는 4 音節 漢字語의 構造를 살펴보면 例 12) 처럼 多樣함을 알 수 있다.

12) ㄱ. 修飾語+被修飾語: 멸문지화 (滅門之禍), 만분지일 (萬分之一)

ㄴ. 主語+敍述語: 국태민안 (國泰民安)

ㄷ. 目的語+敍述語: 동정서벌 (東征西伐)

ㄹ. 敍述語+目的語+補語: 삭발위승 (削髮爲僧)

ㅁ. 副詞語+敍述語+目的語: 홀연득병 (忽然得病)

ㄱ. 은 一般的으로 後置詞 ‘之’ 가 挿入되는 形態이고, ㄴ. 은 ‘主語+敍述語’ 의 並列構造, ㄷ. 은 ‘目的語+敍述語’ 의 並列構造를 갖추고 있다. ㄹ. 과 ㅁ. 은 現代 朝鮮語로 語

順을 생각한다면 ‘삭발위승 (削髮爲僧) > 발삭승위 (髮削僧爲), 홀연득병 (忽然得病) > 홀연병득 (忽然病得)’ 처럼 倒置된 構造가 더 正確한 表現일 것이다.

5 音節 以上の 漢字語는, ‘괴물수삼명 (怪物數三名), 의병장홍길동 (義兵將洪吉童), 활빈당행수홍길동 (活貧黨行首洪吉童), 전임병조판서률도왕신홍길동 (前任兵曹判書律島王臣洪吉童), 돈슈백배상언우조선성상탑하 (頓首百拜上言于朝鮮國聖上榻下)’ 처럼 大部分 合成語의 形態로 52 個 (9.9%) 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긴 14 音節의 漢字語는 ‘돈슈+백배+상언+우+조선국+성상+탑하 (頓首百拜上言于朝鮮國聖上榻下)’ 의 7 개의 合成語 形態로 分析이 可能하다.

3.2 接頭・接尾漢字語

앞 章에서 言及한 것처럼 漢字語는 接頭 또는 接尾漢字語에 依한 派生語를 만들기도 한다. 노명희 (2005) 는 現代朝鮮語에 있어서 接頭漢字語와 接尾漢字語에 對해서 比較的 詳細히 說明하고 있는데, 先行研究를 根據로 本 小說에 나타난 接頭漢字語의 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ㄱ. 일군 (一軍)	일년한 (一年限)	일야간 (一夜間)
ㄱ'. 일개옥동 (一個玉童)	일동일정 (一動一靜)	일시칭찬 (一時稱讚)
일위로옹 (一位老翁)	일위쇼연 (一位少年)	일장대디 (一場大地)
일장통곡 (一場痛哭)	일진음풍 (一陣陰風)	일진청풍 (一陣淸風)
ㄴ. 대장부 (大丈夫)	대적수백여명 (大賊數百餘名)	
ㄷ. 천비쇼생 (賤婢所生)	천첩소생 (賤妾所生)	천첩소생길동 (賤妾所生吉童)

위의 13) ㄱ. 에서 2 音節 ‘일군 (一軍)’ 은 하나의 化石化된 單語로 보고 ‘一’ 을 接頭語로 認定하기 어렵다는 見解도 있다. 그러나 ‘一’ 은 單獨의인 意味로 쓰이기 보다는 冠形性 漢字語 (‘한, 하나, 첫째, 오로지, 온통, 한결같은, 若干의, 어떤, 어느’ 의 뜻을 나타내는 말 <백문식 (2012) 참조>) 로, ‘일직선 (一直線), 일평생 (一平生), ...’ 처럼 形態的 機能과 役割面에서 造語力이 旺盛하여 많은 單語를 生成해내는 接頭漢字語로 볼 수 있다. ㄱ'. 는 2 音節 + 2 音節로 形成된 四字成語로, 漢字語 ‘一’ 이 接頭性 漢字語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岩田 (2013 : 194-195) 에서는, ‘一’ 은 單數로서 數情報의 意味를 나타내는 境遇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含意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含意에는 要素導出型 (要素取り出し型 : 一部分, 一案, 一員) 과 要素包含型 (一家, 一派, 一味, 關東一円, 在庫一掃) 이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 ㄴ. 의 ‘大’ 는, ‘크다, 많다,甚하다’ 라는 意味機能을 띠고 있는 接頭語로 現代語에서도 ‘대성공 (大成功), 대모집 (大募集), 대탈출 (大脫出), 대 (大) 바겐세일’ 等 漢字語뿐만 아니라 外來語와도 어울려 나타난다. ㄷ. 의 ‘賤’ 은, ‘보

잘것없이 賤하다’ 라는 뜻으로, 後行하는 名詞를 修飾하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ㄴ. 의 ‘대장부 | (大丈夫)’ 와 對立概念인 ‘천장부 (賤丈夫)’ 를 비롯하여 ‘천민 (賤民), 천기 (賤妓), 천노 (賤奴), 천덕이 (賤+德+이 <名詞形接尾辭>)> 천더기, 천덕꾸러기 (賤+德+꾸러기 <接尾辭>), 천덕스럽다 (賤+德+스럽다 <接尾辭>), ...’ 처럼 冠形的 機能을 갖고 있는 接辭性 漢字語로 發展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漢字語 ‘賤’ 은 恒常 ‘소생 (所生)’ 과 共起關係를 이루고 나타나는 것도 本 小說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本 小說에 나타나는 接尾漢字語는 人間과 直接 關係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⁸⁾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 | | |
|------------------|-------------|---------------|
| 14) ㄱ. 도부수 (刀斧手) | 위유사 (慰諭使) | 순무안찰사 (巡撫按察使) |
| 일위로옹 (一位老翁) | 황건력사 (黃巾力士) | 탐관오리 (貪官汚吏) |
| ㄴ. 둔갑법 (遁甲法) | 격양가 (擊壤歌) | 한시경 (一時頃) |

위의 14) ㄱ. 은 ‘專門職業, 官職, 身分’ 등의 뜻을 나타내는 人間關聯의 接尾漢字語 (手, 使, 翁, (力)士, 吏) 가 쓰인 例이다. 노명희 (2005 : 256-257) 는 接尾漢字語 ‘수 (手)’ 에 對해서 比較的 詳細히 說明하고 있다. ‘세수 (洗手), 박수 (拍手)’ 처럼 ‘손’ 이라는 本來의 意味를 維持하다가, ‘목수 (木手), 투수 (投手), 선수 (選手), 가수 (歌手), 기수 (旗手)’ 처럼 2 音節 漢字語를 形成하는 例에서는 ‘어떤 일에 從事하거나 職業的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을 指稱하는 다른 意味機能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아가 3 音節 漢字語의 ‘운전수 (運轉手), 소방수 (消防手), 조타수 (操舵手), 우익수 (右翼手), ...’ 에서 알 수 있듯이 接尾漢字語 ‘手’ 의 쓰임이 漸次 擴大되어 가고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ㄴ. 의 ‘法’ (讀圖法, 計算法, 料理法, 教授法, ...) 은 ‘方法이나 規則’ 의 뜻을, ‘歌’ (國歌, 應援歌, 讚揚歌, 農夫歌, 流行歌...) 는 ‘노래’ 의 뜻을, ‘頃’ (十月初旬頃, 三時頃, 16 世紀頃, 月末頃...) 은 ‘그 時間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 (固有語로는 ‘쫘, 무렵, 께’ 로 交替可能함) 를 나타내는 接尾漢字語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本 小說의 局限된 장르와 時代的 背景은 接頭, 接尾에 依한 多樣·多量의 漢字語가 登場하는 데는 若干의 制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3.3 意味場에 依한 漢字語

本 小說에 나타난 漢字語의 意味場에 依한 內容別 類型을 알아보면, 아래의 例 15) 처럼 多樣한 分類가 可能하다.

- 15) ㄱ. 呼稱 (姓名) : 흥길동 (洪吉童), 길동 (吉童), 춘섬 (春纖), 김현충 (金賢忠), 백소저 (白小姐), 조소저 (趙小姐)

- ㄴ. 地名: 락천현 (洛川縣), 운봉산 (雲峰山), 륜도국철봉산 (律島國鐵峰山), 경성 (京城)
- ㄷ. 數量: 년기칠순 (年既七旬), 갑자추구월 (甲子秋九月), 주회칠백리 (周回七百里), 추구월망간 (秋九月望間)
- ㄹ. 身分: 천생길동 (賤生吉童), 천첩소생 (賤妾所生), 천비소생 (賤婢所生), 적서 (嫡庶)
- ㄹ. 道術: 둔갑법 (遁甲法), 변화무궁 (變化無窮), 신출귀몰 (神出鬼沒), 일진음풍 (一陣陰風), 조화신기 (造化神奇)
- ㅂ. 親族: 부친 (父親), 모친슬하 (母親膝下), 부자의충효 (父子忠孝), 형데일반 (兄弟一般), 호부호형 (呼父呼兄)
- ㅅ. 官職: 좌승상 (左丞相), 전임병조판서률도왕신홍길동 (前任兵曹判書律島王臣洪吉童)
- ㅇ. 自然: 경개절승 (景概絶勝), 산천이청수 (山川淸水), 층암절벽 (層巖絶壁), 평원광야 (平原廣野)
- ㅈ. 色彩: 청데장군 (靑帝將軍) 〈五方神의 동쪽〉, 적데장군 (赤帝將軍) 〈五方神의 남쪽〉, 백데장군 (白帝將軍) 〈五方神의 서쪽〉, 흑데장군 (黑帝將軍) 〈五方神의 북쪽이요 중앙은 길동이라〉

ㄱ. 에서 ‘길동 (吉童), 춘섬 (春織)’ 처럼 男女의 區別이 可能한 이름이 많이 나타나며, ‘백소저 (白小姐), 조소저 (趙小姐)’ 처럼 姓 뒤에 붙는 呼稱接尾語 ‘소저 (小姐)’ 도 多數 登場한다. ㄴ. 의 地名은 ‘락천현 (洛川縣)’ 처럼 日本의 行政區域 名稱의 ‘縣’ 이, 冊의 뒷 表紙에도 京城府鐘路四丁目, 京城府松峴町이 登場함을 確認할 수 있다. ㄷ. 은 數概念을 알 수 있는 語彙로, ‘時間 (나이, 季節), 尺度’ 등을 나타내고 있다.⁹⁾ 그밖에 ㄹ. ~ㅈ. 처럼 ‘身分, 道術, 親族, 官職, 自然, 色彩, ...’ 등 多樣한 意味場에 依한 漢字語가 提示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結言

本 研究는 『洪吉童傳』 (昭和9年. 京城) 에 나타난 漢字語의 한글 表記 및 類型에 對한 研究로, 그 內容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2 章에서는, 漢字語의 한글 表記에 對해서 살펴보았는데, 初聲 15 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終聲 7 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가 使用되었고, ‘ㅅ’ 은 ‘천 리밖게 〈千里外〉’ 의 1 回만 登場함을 알 수 있었다. 中聲의 母音은 ‘ㅐ, ㅓ’ 를 除外한 19 個 (單母音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ㅡ ㅣ, 二重母音ㅘ ㅙ ㅚ ㅜ ㅞ ㅟ ㅠ ㅡ ㅢ ㅤ) 가 쓰였다.

漢字語의 한글表記는 大部分 音讀이지만 一部는 訓讀 (音讀 + 音讀 + 訓讀 / 訓讀 + 音讀 + 訓讀 / 訓讀 + 訓讀 / 訓讀 + 音讀 + 音讀, ...) 인 例가 있었으며, ‘돌문속 (石門裏)’ 처럼 訓讀 + 音讀 + 訓讀의 特異한 形態도 確認할 수 있었다. 한편, 漢字語와 漢字語 사이에 文法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格助詞와 連體形語尾가 쓰인 境遇가 있는데, 이것은 漢字語를 理解하고 解釋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思料된다. 卽, 主格 <언어₁중직 (言語忠直)>, 目的格 <대사를도모 (大事圖謀)>, 屬格 <부자의충효 (父子忠孝)>, 副詞格 <흉중에조화무궁 (胸中造化無窮)>의 格助詞가, 連體形語尾 <완연한재상가자제 (宛然宰相家子弟)> 등이 追加的으로 插入되어 나타남을 確認할 수 있었다.

3章에서는, 本 小說에 나타난 漢字語 總 526個를 音節別로 살펴보았는데, 1, 2, 3, 4, 5, 6, 7, 8, 9, 13, 14 音節로 11個의 類型이 나타났다. 2音節 (47.5%), 4音節 (33.6%) 이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2音節 漢字語의 構造를 살펴보면 竝列關係 (同意 <對等> : 하해 (河海), 反意 : 적셔 (嫡庶), 疊語 : 야야 | (爺爺))의 漢字語와, 主述, 修飾, 述補, 述目關係 등의 多樣한 構造의 漢字語를 確認할 수 있었다. 한편, 漢字語는 接頭 또는 接尾漢字語에 依한 派生語를 만들기도 하는데, 本 小說에 나타난 接頭漢字語는 ‘一, 大, 賤, ...’, 接尾漢字語는 ‘翁, 手, 士, 使, 吏, 法, 歌, 頃, ...’ 등이 자주 登場하였다. 또한, 漢字語의 意味場에 依한 內容別 類型을 알아보았는데, 呼稱 (姓名) : ‘백소저 (白小姐)’, 地名 : ‘률도국철봉산 (律島國鐵峰山)’, 數量 : ‘주회칠백리 (周回七百里)’, 身分 : ‘천비소생 (賤婢所生)’, 道術 : ‘둔갑법 (遁甲法)’, 親族 : ‘호부호형 (呼父呼兄)’, 官職 : ‘전임병조판서률도왕신홍길동 (前任兵曹判書律島王臣洪吉童)’, 自然 : ‘증암절벽 (層巖絶壁)’, 色彩 : ‘청제장군 (靑帝將軍)’ 등의 分類가 可能하였다.

朝鮮語의 語彙는 約 70%가 漢字語이기 때문에 漢字語를 習得하고 理解하는 學習은 매우 重要하다. 또한, 中國과 日本을 包含한 漢字文化圈과의 交流를 念頭에 둔다면 漢字語에 關한 研究는 반드시 持續되어야만 한다. 向後 本 研究에 對한 不足한 面을 補完해 주는 훌륭한 研究가 나오기를 期待해 본다.

注

- 1) 이윤석 前 延世大學校 國文科 教授의 主張에 依하면, 芝所 황일호 (1588~1641) 가 쓴 洪吉童의 一代記인 『蘆革傳』을 『芝所先生文集』에서 發見했다고 하였다. 『蘆革傳』의 序頭에 “蘆革은 本來 姓은 홍 (洪) 이고, 이름은 길동 (吉同 / 童) 이니, 實로 우리 나라 望族 (名望이 있는 집안) 이다. 不羈 (拘束을 받지 않음) 의 재주를 품었으며, 글에 能했다” 라고 써 있음을 確認하고 蘆革이 洪吉童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李 教授는 許筠이 썼다는 『洪吉童傳』과 現代人이 읽는 『洪吉童傳』은 전혀 다른 作品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dongA.com 2019.4.24. 參照)
- 2) 1912 年에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 1921 年에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를 定한 朝鮮總督府는 兒童의 學習能率의 向上, 朝鮮語 綴字法의 整理 및 統一을 爲해 正書法 作業을 實施하였는데,

朝鮮人 및 日本人 關聯者를 中心으로 學務局 原案을 作成하고 審議하여, 1930 年에 「諺文綴字法」을 만들게 된다.

3) 1930 年 第 3 回 改正版 「諺文綴字法」 各設 12 項에 依하면, 된시옷의 記號는 ‘씨 까 쫘’ 과 如히 竝書로 하고 ‘씨 까 쫘’ 등과 如한 書法을 取하지 아니함으로 規定하고 있다.

4) 『訓民正音』이 固有文字 (한글) 의 製定, 表記 및 聲音法에 關한 것이라면, 『東國正韻』은 朝鮮 漢字音의 整理 및 統一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中國의 標準音을 提示한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考』 등도 있다. 이러한 文獻들은 言語에 對한 研究뿐만 아니라 思想的 內容까지 담고 있으며, 서로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

5)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ㅅ ㅈ ㅊ ㅈ을 ㅅ ㅈ ㅈ ㅈ로 적는다.

正 : 사회 (社會) 장안 (長安) 차륜 (車輪)

誤 : 사회 장안 차륜

6) 漢字音에 對하야는 歷史的 表記法에 從하야 다 더 도 두 디 타 더 투 티 샤 셔 쇼 슈 자 저 조 주 등을 그대로 保存함.

(예) 덩녕 (丁寧), 텃디 (天地), 샤례 (謝禮), 죠석 (朝夕)

7) 宋敏 (2011b) 에 依하면 本來 單音節語이었던 많은 漢字語가 現代 中國語에서는 2 音節語로 바뀐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美 (> 漂亮/예쁘다), 待 (> 等着/기다리다), 告 (> 告訴/고하다), 國 (> 國家), 盜 (> 強盜), 何 (> 什麼=甚麼 무엇, 무슨, 어떤) 등과 같은 것이다.

8) 本 小説이 發行되기 直前의 時代라 할 수 있는 新小説의 登場과 거기에 나타나는 接尾語에 依한 派生語는 다음과 같다. 〈熊谷 (2014 : 17-18) 參照〉

- 的 (絶對的, 現世的, 社交的)

- 上 (經濟上, 歷史上, 地理學上, 事實上, 應用上, 生活上, 社交上)

- 會 (運動會, 演說會, 婦人會, 同窓會, 歡迎會)

- 所 (代書所, 組合所, 製鐵所, 休憩所, 裁縫所)

- 局 (郵便局, 電信局, 編輯局, 通信局)

9) 拙稿 (2014 : 22-37) 에서는 時間에 關한 數量依存名詞로서 ‘경 (更), ㄱ (頓), 날 (日), 시 (時), ㄴ/월 (月), ㄴ/세 (歲)’ 에 對하여 仔細히 說明하고 있다.

參考文獻

강기진 (1983) 「國語 同音語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高明均 (2003) 「국어 관용어에 대한 연구」 韓國外大 『韓國語文學研究』 17 号

高明均 (2011) 「韓日 漢字語의 同意關係 研究— ‘隣語大方’ (1882 年刊) 을 中心 으로—」 『언어와 문화』 7 권 3 호

高明均 (2014) 『『馬經諺解』 語彙研究』 關西大學出版部

高明均 (2019) 「諺解類에 나타난 漢字語 ‘曰’ 의 翻譯에 關한 考察」 『韓國文化研究』 제 9 号

김광해 (1989)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탐출판사

金周弼 (2019) 「『朴通事新釋諺解』에 使用된 漢字語와 그 表記 特徵」 제 11 회 국제역학서학회 발표 집

노명희 (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박영섭 (2012) 『한자 대역어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백문식 (2012) 『우리말 형태소 사전』 박이정

- 宋 敏 (2011a) 「漢字語語彙史 試論」 國語史研究會 발표 자료
- 宋 敏 (2011b) 「漢字語의 分類基準」 國語史研究會 발표 자료
- 申昌淳 (2003) 『國語近代表記法の 展開』 태학사
- 俞昌均 (1982) 『東國正韻』 螢雪出版社
- 이진호 (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譯註) 역락
- 전정예 (2013)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비교」 『한말연구』 제 32 호
- 石塚由佳 (2019) 「近代国文体小説における漢字表記の変遷—補助漢字の導入その役割について—」 『朝鮮學報』 252 輯
- 岩田一成 (2013) 『日本語数量詞の諸相』 くろしお出版
- 熊谷明泰 (2014) 「朝鮮語의 近代化와 日本語語彙」 関西大学 『人権問題研究室紀要』 67 号
- 中村あずさ (2017) 「『朴通事』 諺解類を通じた音変化の研究— ‘ㄷ’ 口蓋音化中心に—」 関大修士論文
- 『조선어 맞춤법 편람』 (1994)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1980)』 (1989) 한글학회

『洪吉童傳』(昭和9年.京城)에 나타난 漢字語의 音節別 ‘가나다’ 順

* () 是 個數

1 音節 (2)

나귀 (驢) 탕 (湯)

2 音節 (250)

가죽부대 (皮囊)	간(잔)명 (殘命)	간장 (肝腸)	강구 (康衢)	강굴 (降屈)
거역 (拒逆)	건상 (乾象)	검술 (劍術)	공사 (公事)	과극 (過極)
관군 (官軍)	관령 (貫盈)	괴수 (魁首)	굉장 (壯麗)	교훈 (敎訓)
국릉 (國陵)	국문 (鞠問)	군기 (軍器)	군부 (君父)	굴혈 (窟穴)
궁시 (弓矢)	귀체 (貴體)	금단 (禁斷)	기동 (起動)	기상 (氣像)
기세 (棄世)	기절 (氣絶)	길동 (吉童)	길디 (吉地)	나수 (拿囚)
남경 (南京)	남필 (覽畢)	내당 (內堂)	내치 (內治)	당하 (堂下)
대비 (大妃)	대연 (大宴)	대후 (待候)	덕택 (德澤)	데문 (祭文)
도로 (道路)	도백 (道伯)	도탄 (塗炭)	동기 (同氣)	도문 (弔問)
등촉 (燈燭)	디술 (地術)	라렬 (羅列)	락천 (洛川)	랑중 (囊中)
련습 (練習)	령위 (靈位)	룽몽 (龍夢)	루설 (漏泄)	릉멸 (凌蔑)
림종 (臨終)	마숙 (馬叔)	명초 (命招)	묘계 (妙計)	무기 (武器)
무녀 (巫女)	무예 (武藝)	무왕 (武王)	무한 (無限)	문경 (聞慶)
문과 (文科)	문안 (問安)	물종 (物種)	발선 (發船)	발행 (發行)
방중 (房中)	방황 (彷徨)	배설 (排設)	백성 (百姓)	백용 (白龍)
벌주 (伐紂)	변고 (變故)	병법 (兵法)	병환 (病患)	보전 (保全)
보중 (保重)	봉만 (峰巒)	봉송 (封送)	봉작 (封爵)	부친 (父親)
분기 (憤氣)	분부 (分付)	분해 (分解)	불효 (不孝)	붉은혈점 (血点)
비감 (悲感)	사급 (賜給)	사디 (四肢)	사은 (謝恩)	사중 (寺中)
산곡 (山谷)	산명 (山亭)	산맥 (山脈)	산역 (山役)	삼상 (三喪)
상녀 (相女)	상구 (喪柩)	석문 (石門)	성명 (姓名)	성상 (聖上)
성탕 (成湯)	서간 (書簡)	서제 (庶弟)	석사 (昔事)	선릉 (先陵)
선약 (仙藥)	소데 (少弟)	소멸 (消滅)	소슬 (蕭瑟)	속발관 (束髮)
송덕 (頌德)	수회 (愁懷)	순행 (巡行)	슈운 (輸運)	숙배 (肅拜)
순수 (順受)	술법 (術法)	슬하 (膝下)	시신 (侍臣)	시테 (尸體)
신기 (神奇)	신음 (呻吟)	심야 (深夜)	안무 (按撫)	안심 (安心)
압령 (押領)	앙々 (怏怏)	애석 (愛惜)	애통 (哀痛)	액구 (隘口)
야야 (爺爺)	약속 (約束)	약원 (藥院)	엄명 (嚴命)	엄지 (嚴旨)
에걸 (哀乞)	여막 (廬幕)	역군 (役軍)	영웅 (英雄)	오류 (遨遊)
오륜 (五倫)	온수 (溫水)	왕비 (王妃)	왕사 (往事)	왕위 (王位)
왕후 (王侯)	요괴 (妖怪)	요하 (腰下)	운전 (運轉)	원로 (遠路)
원문 (轅門)	위중 (危重)	유언 (遺言)	유의 (留意)	은거 (隱居)
은혜 (恩惠)	은휘 (隱諱)	의술 (醫術)	익일 (翌日)	인륜 (人倫)
인형 (仁衡)	일군 (一軍)	자객 (刺客)	자현 (自現)	자호 (自號)
잔명 (殘命)	장중 (掌中)	정사 (情事)	적서 (嫡庶)	전곡 (錢穀)
전설 (傳說)	전폐 (全廢)	제도 (堤島)	제승 (諸僧)	조발 (調發)

조야 (朝野)	조요 (照耀)	존고 (尊姑)	좌탑 (座榻)	죄책 (罪責)
조병 (調病)	조요 (照耀)	주역 (周易)	주점 (酒店)	지중 (至重)
지척 (咫尺)	지휘 (指揮)	짐작 (斟酌)	차도 (差度)	창고 (倉庫)
천거 (薦舉)	친국 (親鞠)	철삭 (鐵索)	철색 (鐵索)	철통 (鐵桶)
청령 (聽令)	청슈 (淸秀)	청아 (淸雅)	청파 (聽罷)	초란 (初蘭)
초민 (焦悶)	초인 (草人)	초헌 (超軒)	초등 (超等)	총첩 (寵妾)
춘랑 (春娘)	춘섬 (春織)	추존 (追尊)	측은 (惻隱)	칙은 (惻隱)
친묘 (親墓)	쾌사 (快事)	쾌차 (快差)	탄복 (歎服)	턴명 (天命)
턴살 (天殺)	턴은 (天恩)	통한 (痛恨)	특재 (特才)	팔괘 (八卦)
편협 (便狹)	표백 (漂泊)	풍백 (風魄)	풍우 (風雨)	하례 (賀禮)
하해 (河海)	하회 (下回)	한탄 (恨歎)	함거 (檻車)	행상 (行喪)
행인 (行人)	향화 (香火)	현충 (賢忠)	협실 (寢室)	호계 (護食貴)
호위 (護衛)	홍문 (洪門)	홍점 (紅點)	화각 (畫閣)	환약 (丸藥)
환자 (宦者)	환후 (患候)	황감 (惶感)	흉적 (凶賊)	희한 (稀罕)

3 音節 (45)

격양가 (擊壤歌)	곽분양 (郭汾陽)	김현충 (金賢忠)
대장부 (大丈夫)	대장인 (大將印)	대질왕 (왕) (大叱曰)
도부수 (刀斧手)	돌문속 (石門裏)	둔갑법 (遁甲法)
락천현 (洛川縣)	로복등 (奴僕等)	룰도국 (律島國)
망당산 (芒塘山)	망부산소 (亡父墓)	모부인 (母夫人)
반렬중 (班列中)	반향후 (半日向後)	백소저 (白小姐)
부원군 (府院君)	수백호 (數百戶)	슈천호 (數千戶)
애걸와 (哀乞曰)	여성왈 (厲聲曰)	오봉산 (五峰山)
옥저소래 (玉笛聲)	우승상 (右丞相)	운봉산 (雲峰山)
월봉산 (月峰山)	위유사 (慰諭使)	의론왈 (議論曰)
일년한 (一年限)	일야간 (一夜間)	전후사 (前後事)
정색왈 (正色曰)	좌승상 (左丞相)	조소저 (趙小姐)
차탄왈 (嗟歎曰)	천리밖게 (千里外)	청려杖 (靑藜杖)
평생한 (平生恨)	평생힘 (平生力)	한시경 (一時頃)
현덕왕 (賢德王)	활빈당 (活貧黨)	흥인문 (興仁門)

4 音節 (177)

가중천대 (家中賤待)	각읍슈령 (各邑守令)	감사발군 (監司發軍)
견견지정 (縑縑之情)	견벽불출 (堅壁不出)	경개절승 (景概絶勝)
경국지색 (傾國之色)	경상감사 (慶尙監司)	경성한강 (京城漢江)
공경대왈 (恭敬對曰)	과연범인 (果然凡人)	국태민안 (國泰民安)
금성천리 (金城千里)	그남숙녀 (奇男淑女)	남가일몽 (南柯一夢)
남편대로 (南便大路)	년기칠순 (年既七旬)	년기필순 (年既八旬)
놀나사죄 (驚動謝罪)	당々남자 (堂堂男子)	대경대희 (大驚大喜)
대경실색 (大驚失色)	대사를도모 (大事圖謀)	면하덕택 (殿下德澤)
데일강산 (第一江山)	데장군졸 (諸將軍卒)	동정서벌 (東征西伐)
랑중취물 (囊中取物)	량초부족 (糧草不足)	루대청덕 (累代淸德)

육도삼략 (六韜三略)	만분위중 (萬分危重)	만분지일 (萬分之一)
만석부자 (萬石富者)	만수무강 (萬壽無疆)	만수무강 (萬壽無疆)
만수무강 (萬數無疆)	만조백관 (滿朝百官)	망々대해 (茫茫大海)
망명도생 (亡命逃生)	망명도주 (亡命逃走)	망지소조 (罔知所措)
망풍귀순 (望風歸順)	멸문지화 (滅門之禍)	명재조석 (命在朝夕)
모친슬하 (母親膝下)	무리지당 (無賴之黨)	묵々반향 (默々半晌)
민심이소동 (民心騷動)	반점수심 (半點愁心)	방성대곡 (放聲大哭)
백제장군 (白帝將軍)	백룡부부 (白龍夫婦)	백배사은 (百拜謝恩)
변화무궁 (變化無窮)	병입고항 (病入痼疒)	병입골수 (病入骨髓)
병정양족 (兵精糧足)	병정량족 (兵精糧足)	병조하속 (兵曹下屬)
복디대왈 (伏地對曰)	복디주왈 (伏地奏曰)	복망성상 (伏望聖上)
봉명퇴조 (奉命退朝)	부자의충효 (父子忠孝)	부친릉호 (父親陵號)
부친생시 (父親生時)	불승감사 (不勝感謝)	불의지변 (不意之變)
불의지인 (不義之人)	불충불효 (不忠不孝)	사생존망 (死生存亡)
사중이황겁 (寺中惶懼)	삭발위승 (削髮爲僧)	산천이청수 (山川清水)
삼천적당 (三千賊黨)	석물범절 (石物凡節)	선참후계 (先斬後啓)
선혜당상 (宣惠堂上)	성상대덕 (聖上大德)	소년등과 (少年登科)
수백장교 (數百將校)	수월지내 (數月之內)	슈십선척 (數十船隻)
신병이쾌차 (身病快差)	신출귀몰 (神出鬼沒)	십분의아 (十分疑訝)
쌍루종횡 (雙淚縱橫)	야야생시 (爺々生時)	야야영구 (爺々靈柩)
언어 충직 (言語忠直)	여취여광 (如醉如狂)	영결던하 (永訣殿下)
영웅호걸 (英雄豪傑)	옥야던답 (沃野田畝)	옥야천리 (沃野千里)
원근백성 (遠近百姓)	원앙에자미 (鴛鴦滋味)	은혜망극 (恩惠罔極)
음식이부족 (飲食不足)	인물이번승 (人物繁盛)	인의례지 (仁義禮智)
일개옥동 (一個玉童)	일동일정 (一動一靜)	일시에칭讚 (一時稱讚)
일위로옹 (一位老翁)	일위쇼연 (一位少年)	일장대디 (一場大地)
일장통곡 (一場痛哭)	일진음풍 (一陣陰風)	일진청풍 (一陣清風)
일진흑운 (一陣黑雲)	일편지한 (一片之恨)	작난이무수 (作亂無數)
장교슈십 (將校數十)	재기과인 (才器過人)	재산이부요 (財產富饒)
재조불측 (才操不測)	장부심사 (丈夫心事)	전후길흉 (前後吉凶)
정조천석 (正租千石)	적제장군 (赤帝將軍)	조선성상 (朝鮮聖上)
조석제전 (朝夕祭奠)	조화신기 (造化神奇)	존당문안 (尊堂問安)
좌랑인형 (佐郎仁衡)	좌우포청 (左右捕廳)	주야배도 (晝夜倍道)
주야통곡 (晝夜痛哭)	준민고택 (賤民膏澤)	즉위삼년 (卽位三年)
즉일발행 (卽日發行)	진퇴유곡 (進退維谷)	집수통곡 (執手痛哭)
천고영웅 (千古英雄)	천부지국 (天府之國)	천비쇼생 (賤婢所生)
천생길동 (賤生吉童)	천첩쇼생 (賤妾所生)	철봉태수 (鐵峰太守)
처소 초원 (處所稍遠)	천비쇼생 (賤婢所生)	청제장군 (靑帝將軍)
청포소년 (靑袍少年)	청포흑대 (靑袍黑帶)	초종범절 (初終凡節)
충명이과인 (聰明過人)	추호불범 (秋毫不犯)	출반주왈 (出班奏曰)
충효겸비 (忠孝兼備)	층암절벽 (層巖絕壁)	치산범절 (治山凡節)

칠원망간 (七月望間)	탐관오리 (貪官汚吏)	탐전설화 (榻前說話)
택일출사 (擇日出師)	턴도 자연 (天道自然)	턴문디리 (天文地理)
턴상성진 (天上星辰)	턴위진로 (天威震怒)	특재응락 (特才應諾)
팔도 요란 (八道擾亂)	평원광야 (平原廣野)	풍도디옥 (風島地獄)
풍운이대작 (風雲大作)	행중범절 (行中凡節)	현덕왕비 (賢德王妃)
형데일반 (兄弟一般)	호부호형 (呼父呼兄)	호풍환우 (呼風喚雨)
혼불부신 (魂不附身)	홀연득병 (忽然得病)	홀연사지 (忽然四肢)
황건력사 (黃巾力士)	후원에배회 (後園徘徊)	흑데장군 (黑帝將軍)

5 音節 (32)

갑자추구월 (甲子秋九月)	경문왈선동 (驚問曰仙童)
경성홍판서 (京城洪判書)	괴물슈삼명 (怪物數三名)
근간곡산모 (近間谷山母)	두소년녀자 (兩少年女子)
등국삼십년 (登國三十年)	디방이수천리 (地方數千里)
률도왕표문 (律島王表文)	면관둔슈왈 (免冠頓首曰)
백미수십석 (白米數十石)	비복등이전대 (婢僕等賤待)
소년경박자 (少年輕薄子)	순무안찰사 (巡撫按察使)
오인류재왈 (嗚咽流涕曰)	우포장리흠 (右捕將李洽)
원래곡산모 (元來谷山母)	일등관상녀 (一等觀相女)
장안성북악 (長安城北嶽)	재상가천생 (宰相家賤生)
정조일천석 (正租一千石)	종자수십인 (從者數十人)
주회칠백리 (周回七百里)	지자막여부 (知者莫如父)
집슈류재왈 (執手流涕曰)	창곡이루거만 (倉穀屢巨萬)
추구월망간 (秋九月望間)	턴지간용납 (天地間容納)
포졸슈삼인 (捕卒數三人)	하관후최복 (下棺后衰服)
협천해인사 (陝川海印寺)	후원영락던 (後園永樂殿)

6 音節 (12)

대々명문거족 (代代名門巨族)	대적수백여명 (大賊數百餘名)
턴상에일위군왕 (殿上一位君王)	률도국철봉산 (律島國鐵峰山)
미간에산천정기 (眉間山川精氣)	부생모육지은 (父生母育之恩)
심새자연산란 (心思自然散亂)	의병장흥길동 (義兵將洪吉童)
좌우포장은발군 (左右捕將發軍)	천첩소생길동 (賤妾所生吉童)
토포대장리흠 (討捕大將李洽)	흉중에조화무궁 (胸中造化無窮)

7 音節 (2)

완연한재상가자제 (宛然宰相家子弟)
을축정월초구일 (乙丑正月初九日)

8 音節 (3)

보턴지하 (상) 막비왕토 (普天之上莫非王土)
솔토지민이막비왕신 (率土之民莫非王臣)
활빈당행슈흥길동 (活貧黨行首洪吉童)

9 音節 (1)

전임병조판서흥길동 (前任兵曹判書洪吉童)

13 音節 (1)

전임병조판서률도왕신홍길동 (前任兵曹判書律島王臣洪吉童)

14 音節 (1)

돈슈백배상언우조선성상탑하 (頓首百拜上言于朝鮮國聖上榻下)

*. 本 研究는 2019 年 11 月 韓國外國語大學校 言語研究所가 主催한 定期學術大會에서 發表한 內容을 修正, 補完한 것임.